



독서문화상 대통령표창 (단체상)을 수상한 부산지구협의회

◀수상하는 모습

우리 협회 부산지구협의회는 올해 제10회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역 도서관들이 그간 독서진흥에 노력해 온 것을 평가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번 호는 부산지구협의회의 전희준 회장을 서면으로 인터뷰 했다. ■ 편집자 주

Q 우선 우리 협회 부산지구협의회가 이번 제10회 독서문화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 회원 모두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 독서진흥에 많은 공헌을 해 온 것이 평가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협회에서는 우선 기관지인 《부산도협회보》를 통해 도서관들의 독서활동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보는 연2회 발행하고 있는데 올해 제10호(4월)와 제11호(10월)를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명시나 격언, 명구 등을 담은 A4지 3절 6면짜리 리플렛 〈마음발 걸우기〉를 연 6회, 1회당 5천매를 제작해서 회원은 물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시 산하 자치구 공보담당관과 시교육청 교육위원 및 계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만매를 발행해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는 우수 사서 및 사서교사를 발굴, 표창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10월에 모두 9명의 사서와 사서교사들에게 표창장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서관 견학을 다녀오고 있는데, 올해는 11월 말경 45명 내외의 회원들과 함께 포항공대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교원대도서관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회원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이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Q 이번 수상의 공적 가운데서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독서진흥 활동이 크게 평가받은 것으로 압니다. 실제 학교에서의 독서 현황은 어떻게습니까? (부산지역의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기 독서활동은 공공도서관과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도서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독서진흥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장서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사서담당과 도우미 어머니가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마다 학급 문고도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수준을 인증하는 방식은 우선 학교별로 독서인증센터가 제공한 도서목록이나 기타 여러 목록 등을 활용하여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독서담당교사와 국어교사, 선정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별 권장도서 50권과 필독도서 25권을 선정하여 이를 학생들이 모두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1권당 2문항씩 출제, 응시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7등급에서 1등급까지 부여하고, 1등급 학생에게는 학교장상을 수여,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독서란을 탑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학생이 독후감을 올리면 다른 아이들이 꼬리말을 올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서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인증을 위한 독서결과 확인은 초등학교와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등급을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부담으로 인해 학년이 높을수록 호응도가 약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사들이 먼저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독서 지도를 위해 교사모임을 조직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담당교사 모임인 '독서 새물결' (회원 200명),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독서교육분과회' (회원 150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사들의 '책읽는 사람' (회원 300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독서생활화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입니다. 독서생활화는 독서습관화이고, 습관화, 즉 버릇들이기는 어릴 때 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생활화, 독서습관화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당위(當爲)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의무로, 학교에서는 강제로라도 학생들이 책읽기를 즐겨 하도록, "독서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

interview

interview



◀ 전희준 회장

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 그 즐거움과 유익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교무실 분위기도 바꾸어야 하고, 그 중심에 독서교육 담당교사와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이번 우리 협회 도서관대회 주제가 '지방분권과 자율을 선도하는 도서관' 이었는데,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시대 도서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 미국의 초기 이민시대가 그러했듯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의식수준은 지방자치의 성패와 수준을 가능하는 것 대랄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수준은 주민의 독서수준과 동일한 것이므로,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의 도서관은 주민의 독서생활화를 통해 그 독서수준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부산지역의 도서관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100년사도 발간하셨죠? 그 동안 부산지역에서 도서관이 든실한 역사를 만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부산지구협의회 발전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1963년 설립이니 41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195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불타올랐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그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지금의 경남을 포함한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접어들며 산업화에 치중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데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이 활력을 잃어가다가 1990년대는 그야말로 학교도서관이 유명무실한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전산화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BBS(Busan Books Start)운동을 전개하여 학·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독서진흥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1994년 2월 부산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연찬모임인 「부산도서관 연구회」를 결성하여 매년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람문고협의회」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독서지도에 힘쓰고 독후감을 공모하여 매년 9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부산의 4개 대학 교수들의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지회의 사무실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도 확보되면 이들 조직들과 연계하여 부산지역의 독서생활화운동을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 한도협 부산지회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부산지구협의회와 같이 도서관 관련 전문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서관들의 연대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우리 협회 활동과 관련해서 충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전문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변호사회'가 인권신장을 위해 당직 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생계곤란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한 축으로서 제도권에 대한 비판, 견제, 주장 등을 펼치고, '의사회'가 국민보건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등, 전문직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협회도 시민들의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독서생활화운동 주체로서의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들의 연계 방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수준은 그 국민의 의식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은 그 독서수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룩한 부강의 원천은 메이지(明治) 이후의 의식혁명이며, 특히 독서하고 사색하는 국민상을 부각시키는 데 재빨리 성공한 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전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해야, 규범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며 교양 있는 사람들로 격조있는 사회를 이루어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독서생활화운동 같은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이 활발하고 원만하게 추진되자면 관종별 내에서 그리고 각 관종 간에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연계가 있는 후에 도서관의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상의 상호협조, 상호보완도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Q 도서관과 독서진흥은 서로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독서진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은 학생들의 공부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독서에도 해당되는 격언입니다. 20여년 전 백린 선생의 강연에서 “미국의 독서열은 대단하다. 교회와 학교가 어린이 교육기관이라면 도서관은 성인 교육기관이다. 미국의 노인들은 독서하지 않으면 죽는다. 고독을 달랠 길이 독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도서관에서는 Books Mobile로 매주 주민들에게 책을 배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풍토에서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3,873개관의 도서관을 기증하여 도서관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들이 오늘의 미국 국력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어떻게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듯 싶습니다. 우선 도서관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독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는, 편리하고 요긴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부산에서처럼 도서관이 고지대나 변두리에 덩그러니 큰 건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동화나 우체국처럼 마을 속의 ‘작은 도서관’으로洞마다 세워져야 합니다. 마을의 부녀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이 도서관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의 회관 구실을 해야 합니다.

Q 끝으로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사회의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조성은 지도급 인사들의 취향에 많이 영향 받는다고 봅니다. 제왕 한 사람의 취향이 능히 천하의 풍조를 바꿔놓는 일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시대의 경향만은 아닐 것입니다. SK그룹 창설자 C 회장 작고 시 고인(故人)의 유언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후 우리나라 장례의 화장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의상이나 복장의 유행이 인기 연예인들을 따라가는 것도 그 방면에서는 그들이 리더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사회의 분위기가 그 사회 주류들의 취향과 그에 따른 행동이 만들어 냅니다. 해방 직후까지도 우리나라 도회의 종류층에서는 그래도 염치와 교양을 챙겼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독서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와 산업화 시대를 겪고 대중 정치시대가 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데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까지 가세해 많은 학생 혹은 주위사람들이 읽는 책을, 빠질 세라 따라 읽던 분위기도 없어서 버렸습니다. 선진국들은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이 10권을 웃도는데 우리는 20여년 계속 2.5권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국의 핑귄북, 미국의 모던 라이

브러리, 프랑스의 꼬세즈, 독일의 레크람, 일본의 이와나미(岩波) 등 나라마다 대표적인 문고본이 있어, 그들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책을 읽습니다. 우리도 을유문고, 정음문고, 범우문고, 동서문고, 삼중당문고 등 출판사마다 문고본을 냈으나 대표적인 문고본으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친구 집에 갔더니 금테 두른 고급 진에 커피를 내오는데 거실에 책은 한 권도 없더라며, 강남 고속터미널 앞 지하상가에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돈보다는 염치와 교양을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회 주류(主流)들의 독서분위기 조성이 어렵다면 역으로 자라는 새싹들부터 독서하는 습관이 배여들게 하는 정책이라도 써야 할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식으로 실시하되 교육과정에 독서교육 교과목을 설치하여 전담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에서 발표케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학생부의 행동발달사항에 기재하는 등의 방안 등을 강구, 독서습관화, 독서생활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시 한 번 지구협의회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고맙습니다. 

